

# 간암 자가격리자, 지연 이송 뒤 숨져

### 광주 북구보건소 야간당직자 연락 안 돼...착신전환도 '불통'

### 응급 상황서 수용 병원 못 찾아 지연...2시간19분 만에 입원

### "유족에 사죄"...근무 체계 개선·질환 보유 격리자 관리 강화

해외에서 입국한 직후 자가 격리 중 이던 간암 말기 환자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것과 관련해 보건소의 단일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3일 광주 북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간암 치료를 위해 일본에서 입국한 A(68·여)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후 2주간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 A씨는 광주 북구 소재 자녀의 집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자가 격리 둘째 날인 26일 새벽부터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이 희미해졌다. A씨 가족은 같은 날 오전 1시38분께 황급히 광주 북구 자가 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 B씨에게

"응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전담 공무원 B씨는 A씨 딸의 요청대로 지역 한 암 치료 전문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수차례 보건소 당직 근무자 자리 내선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음'만 확인했다. 조조함에 A씨 가족들도 번갈아가며 대표전화로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북구보건소 내 야간 당직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자정부터는 개인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해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춘다.

그러나 A씨 가족은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 대표전화 번호로는 착신 전환이 되지 않았고, 연결 가능한 번호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가 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 조차 심야 시간대 당직 근무자와 통화할 수 있는 착신 전환 번호를 알지 못했다.

그 사이 전담 공무원 B씨가 오전 2시22분께 관련 업무를 도맡는 감염병관리팀 직원의 개인 연락처를 구해 상황을 알렸다.

이후 감염병관리팀 직원 등이 응급실 내 격리 병상 여유가 있는 의료기관을 수소문했으나 "당초 협의대로 시의 요청 등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답이 되돌아왔다.

자치구 보건소·광주시 방역당국이 조율을 거쳐 응급실 내 격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협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건소는 오전 2시59분께 A씨 가족에게 직접 119구급대 응급 이송 요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같은날 오전 3시10분께 119구급대가 A씨를 구급차에 실었으나 한 차례 대형병원에서 환자 수용을 거절 당했다.

오전 3시57분에서야 조선대학교 격리 병상에 입원했다. A씨 가족이 전담 공무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병원 입원까지 2시간19분이 걸렸다. A씨는 결국 지난달 28일 정오께 숨졌다.

A씨 가족은 "어머니가 간암 말기로 위중한 것은 맞지만, 최근 간 이식 수술에 희망을 걸고 귀국했다"며 "자가 격리 지정 전후로 보건소 측에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알렸고, 응급 이송 시 연락처와 대응 지침 등을 이미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대이지만, 보건소가 위급한 상황에서 '핫라인'은 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건소 측에서 알려준 위급 상황시 연락처가 연결되지 않아 이송 조치가 지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불통을 터뜨렸다.

서선욱기자

## 여수산단내 기업 석탄저장소에서 화재

3일 오후 2시 6분께 전남 여수국가산단내 A 사 공장 석탄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여수산단 A 사에 따르면 이날 작업 중 석탄 저장소 내 운반용 바스켓에서 작업 중 연기와 함께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여수소방서는 소방차 16대와 소방인력 30명을 동원해 진화했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와 여수소방서는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고흥 새우 건조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전 9시33분께 전남 고흥군의 한 새우 건조 공장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2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1개동 설비 일부 등이 타거나 그을렸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만취해 여동생 흥기로 찌른 오빠...“기억 안난다” 구속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여동생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30대 여동생을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몸통과 팔 등에 수 차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행인이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와 다툰던 일은 기억 나지만 흥기로 동생을 다치게 했던 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5살배기 아들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했다. 아동학대 여부는 아직 수사중이다.

A씨는 동생을 향해 흥기를 휘두르던 중 곁에 있던 아들도 다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성매매업소 출입기록 사들여 "영상 있다" 협박...실형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라고 협박해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 조직의 행동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이 속한 조직은 2019년 8월28일부터 지난해 2월4일까지 4회에 걸쳐 2억196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대표폰으로 연락해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과 가족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조직의 행동책으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표통장 및 대표폰을 구입하거나 불특정 다수에서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관리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B씨는 대표통장을 관리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원을 나눠 다른 대표통장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책과 A씨에게 범죄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조직의 총책은 일명 '남부장'이라고 알려진 인물로, 필리핀에 거주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설 연휴엔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휴게소 포장만 허용

### 10~14일 닷새간 설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설 연휴인 11~1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금지되고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된다. 대중교통도 차가 좌석만 판매하거나 정원의 50% 수준만 허용해 밀집을 차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0~14일 닷새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설 특별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4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939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연휴 통행 실태조사'를 보면 자가용 이용 비율은 93.5%로 지는 5년간의 86.2%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우선 대중교통 내 감염을 우려해 자가용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로 분야 방역 강화와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접촉 관리를 강화한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또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32개소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혼잡이 예상되는 대중교통별로 방역 강화와 이용 자제도 유도한다.

철도는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차가 좌석만 판매한다. 버스·항공의 경우 차가 좌석에 대해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여객선은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철도역과 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는 수시로 소독하고 오가는 사람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로 발열 체크를 한다. 매표소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승·하차 동선도 분리한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겨울철 폭설·한파와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드론과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김민정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